청와대 석불좌상 '환지본처' 재점화 되나

尹 당선인 '용산 시대' 발표
청와대, 기념관 · 공원 활용
청와대 미남불 이전에 관심
경주서도 반환 움직임 일어
"조만간 환수운동 다시전개"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의 모습.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일제강점기 당시 불법 반출돼 현재 위치에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를 개방해 국민공원으로 조성하고 본관을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미남불'이라고 불리는 보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경주 지역으로의 환지본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후 청와대 활용방안에 대해 "장제스 前 대만 총통의 경우 기록관을 설립하고 자동차 등이 공개됐다"며 "기록관 · 기념관 · 박물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해 과거 대통령들을 기록하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질곡의 역사와 함께한 불상

청와대 안팎으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내려온 역사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는 보물 제1977호로 지정된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다. 9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높이 108㎝, 어깨너비 54.5㎝, 무릎 너비 86㎝로 풍만한 얼굴과 약간 치켜 올라간 듯한 눈이 특징이다.

이 불상이 청와대 보안구역에 있게 된 과정은 질곡의 근현대사와 함께한다. 1913년 경주금융조합 이사였던 오하라(小平)는 불상을 불법 반출해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조선 총독에게 바쳤고, 불상은 서울 남산 총독관저가 있던 왜성대로 이운됐다. 1939년 경복궁에 새 총독관저(현 청와대)가 건립되면서 불상은 현재 위치로 옮겨졌다.

실제, 1939년 조선총독부박물관 직원의 관련 조사서에는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순시할 제 그 석불을 보되, 재삼 되돌아보며 숙시(熟視)하기에 당시 소장자였던 오하라가 총독의 마음에 몹시 들었음을 눈치채고 즉시 서울 총독관저로 운반했다"고 기록돼 있다. 후일 데라우치 총독이 이 불상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으나, 비판 여론이 일어나 가져가지 못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청와대 석불좌상을 경주 지역으로 환지본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본래 위치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경주를 중심으로 일었다. 2018년 〈신라사적고(新羅寺蹟考)〉가 발견되면서 본래 자리가 '이거사지'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도 불상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환지본처로 오욕의 역사 끝내야"

문화재 운동을 전개해 온 전문가들은 청와대 이전이 현실화되면 일제에 의해 경주에서 불법반출된 석불을 본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그동안에는 어디로 어떻게 환수해야 할지를 몰랐지만, 경주시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환수를 원하고 있다. 발굴조사를 통해 이거사로 본래 자리도 확인한 상황"이라며 "이제 청와대 석불좌상은 오욕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본래 고향인 경주로 환지본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도 청와대 석불좌상을 경주로 환수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주문화재제자리찾기시민운동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는 진병길 신라문화원장은 "청와대에 불상이 있는 것과 대통령 기록관에 불상이 있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 청와대 석불좌상은 원래부터 오욕의 역사를 상징했다. 이제는 환수돼 경주로 돌아와야 한다. 문화재청에서도 발굴 및 부지 매입 예산을 책정한 만큼 환수에 탄력이 붙었으면 한다"면서 "조만간 환수운동을 다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장학제도 '동국건학장학' 신설

조계종립 동국대(총장 윤성이)가 인재 양성을 통한 건학이념 구현에 나선다.

동국대는 "불교소양을 갖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을 신설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세계 유수 대학들은 그 대학만의 대표적인 장학제도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로즈장학, 미국의 펄브라이트 장학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클린턴 前 대통령, 영국 블레어 총리 등 세계 각국의 지도자 인사들이 이러한 장학제도의 수혜자다.

동국대는 지난 2021년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과 함께 동국대 학생들의 장학기금 모금 체계 확립과 확대를 통한 기금 재원을 마련해왔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동국대 대표 장학제도인 '동국건학장학' 1기 장학생을 선발해 운영키로 했다.

신설된 '동국건학장학'은 학업성적 외 품성, 지도력, 봉사활동 등을 기준으로 선발해 선정부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지원을 지원한다. 1기 지원 자격은 2학년부터 4학년까지며, 각 학년 10명씩 총30명이 선발된다. 성적 평점 평균 3.5점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접수 기한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다.

또한, 동국대는 장학생 선발 이후에도 학생들에게 △해외탐방 프로그램 △진로지원 △장학생 모임 △졸업 커뮤니티 구성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신성민 기자

"화마가 할퀸 상처, 불교계 보시행으로 치유해요"

비구니회 2천 · 화엄회 1천만 원
고운사 1천 · 화계사 2천만 원 등
원행 스님 1억 원 동해시에 전달



조계종은 이철규 동해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십시일반한 2000만원을 전달했다.



부산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가 1000만원을 쾌척했다.

경북울진 ·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불교계 자비온정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와 부산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서울 화계사 등 전국에서 잇따라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한 지원금을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3월 24일, 산불 피해 복구기금 1억 원을 이철규 동해시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3월 2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원행)을 통해 산불피해복구지원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회장 본각 스님을 대신해 전달식에 참석한 상덕 스님은 "산불 발생 후 인근 비구니 스님 운영 사찰을 잘 살폈다"면서 "국가적으로 큰일을 겪은 만큼, 전국 19개 지회가 십시일반 기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작스레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더 큰 피해 없이 산불이 멈춰 다행"이라며 "스님들이 원력을 갖고 기도 잘 해준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 총무부장 현진 스님, 사업부장 덕환 스님과 비구니 종회의원 혜도 스님, 철우 스님이 참석했다.

부산비구니 자비봉사 화엄회(회장 상화)도 경북울진 산불피해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쾌척했다. 총무 효광 스님은 "48명의 회원 스님들이 마음을 모았다"며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멀리서 도와줘 마음이 더 든든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화엄회는 이날 대성암 선원장 자행 스님의 성금도 대신 전하며 사건 사고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종단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인천 지선사(주지 덕환)와 서울 화계사(주지 수암)도 각각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지선사 주지 덕환 스님에게 "어려운 살림에도 큰마음을 내줘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선배들 취지와 뜻을 받들어 앞으로도 사찰을 잘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화계사는 산불 피해 지원금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난민 구호를 위해서도 기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수암 스님은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수행 중인 우크라이나 출신 원학 스님과 폴란드 출신 관미 스님이 난민 구호활동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한 경제적 지원도 직접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도 아름다운동행에 10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한마음으로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불교계에서 온정의 손길이 속속 답지함에 따라 조계종은 복구를 위한 모연금을 전달하며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계종과 아름다운동행은 3월 24일, 이철규 동해시 국회의원에게 지원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日, 책임 인정하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참회하라"

"일본 정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분들에게 석고대죄하며 참회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의 주관으로 진행된 제153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3월 2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렸다.

이날 수요시위는 소녀상 주위를 미리 선점한 단체들에 밀려 소녀상에서 70여m 떨어진 곳에 경찰이 설치한 폭 2.5m 길이 50여m 바리케이트 안에서 열렸다.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동참한 30여 명의 단체와 시민들은 바리케이드 안에서 역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수요시위를 지지했다.

이날 지몽 스님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질타하며 할머니의 한을 풀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노위원 고금 스님의 법고에 이어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피해자 할머니와 희생자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희생자를 위한 추모도 함께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2 대한민국 불교문화 엑스포

검색창에 대한민국불교문화엑스포 검색하세요

2022. 4. 7(목) ~ 10(일)
대구 EXCO(엑스코) 서관 1홀
공식홈페이지 www.bexpodg.kr

주요 프로그램

주제전 - 전통문화와 일상을 잇는 대구 무형문화재 장인 특별 전시

문화·산업전
- 도자, 금속, 옻칠, 목공 등 신라부터 현대까지 이어져온 불교공예전
- 불상, 불화, 단청 등 전통 불교미술 및 현대미술 작가들이 참여하는 불교예술전
- 차, 수행의식, 문화산업 등 일상생활에 자리잡은 불교문화전

기획전
- 대구경북 각 지자체의 문화콘텐츠를 선보이는 지자체특별전
- 해외 불교문화를 만나는 해외교류전

특별전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템플스테이 20주년 기념 홍보
- 사찰 음식 특별전
- '본디나' 불교문화상품 특별전시

부대프로그램
- 연꽃무드등만들기, 전통문양 블록체험 등 불교 및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
- 삶의 지혜를 주시는 유명 스님들의 법문으로 진행되는 무대 프로그램

주최 불교신문 BBS불교방송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Daegu Buddhism Association 대구불교종연합회
직지사 동화사 은해사 불국사 해인사 고운사 한국불교대학大관음사
협력 (사)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연합회 (사) 대한민국명인회 대구·경북공예협동조합 (사)한국차인연합회

2022대한민국 불교문화엑스포사무국
대구사무국 : 053-427-5114
엑스포사무국 : 02-2231-2013
bexpo@daum.net

무료사전등록 바로가기QR코드